

개방화시대의 유제품 개발전략

일 시 : 1994년 5월 20일 오후 1:30

장 소 : 매일유업중앙연구소 강당

좌 장 : 김현욱 교수 (서울대 동물자원학과)

토 론 자 : 김정희(남양유업) 문지웅(서울우유) 백병학(빙그레)
안종건(방통대) 전석락(매일유업)

작년말 UR협상 타결로 유제품도 수입개발의 물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방화에 대비한 각 유업체의 유제품 연구개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유업체의 연구소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모든 유가공 기술자가 앞으로의 대책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하였다. 발표된 내용을 정리 게재하여 앞으로의 유가공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개방화시대의 유제품 개발전략

좌 장 : 토론에 참가한 각 연구소장님께서 자사의 연구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정 희 소장 : UR에 대한 대응방안은 원가절감에 의한 경쟁력있는 제품개발,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신제품 개발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기본배경으로 첨부해서 개방이 되었을때의 기업의 변화와 제품의 현상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첫째로 개방이 되었을때 우리나라는 제품의 품질이 열악하고 다양화에 있어서 열세에 있을 것이다. 우유제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에 비하여 뒤떨어진다. 일본의 예를들면 유업체 한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이 보통 1,000여 가지가 넘는다. 일년에 100가지정도 개발하고 사라진다. 일본은 핵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소품종다량 구입형에서 다품종소량구입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두번째로 한국인의 외국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사상이다. 특히 유아용식품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렇다. 조제분유, 이유식 등에서 가격이 조금 비싸도 얼마든지 구입한다.

세번째로 한국기업들의 개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다. 이러한 불안감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자체의 연구개발보다는 외국제품을 손쉽게 수입, 판매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네번째로 광고전략에서 외국제품들은 이른

적인 임상효과 등을 소비자단체, 학회, 병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인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망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신제품의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 소품종의 다량판매가 아닌 다품종을 생산하여 경쟁적인 구매의욕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데 신제품 다양화전략에 있어서 첫째, 가능한 한국적인 고유한 신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생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신소재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lactoferrin, Ig, lactulose, 올리고당 등 값이 비싼 고부가가치 신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소재를 학계, 단체에서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효용에 있어서 기업이 참가하지 않으면 어렵다. 아무리 개발이 되었다라든 기업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기업이 연계 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특유의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들어 일본이 발효유에 필리핀 원산지인 반나코코, 나다데코코(코코넛의 껍질을 끓여서 만든 성유소)등을 첨가하여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커피우유도 각 산지별로 포장지를 달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개방에 있어서 우리기업들이 불안심리를 갖지말고 외국에 우리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농수산부 자료에 보면 외

국의 조제분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본의 예를보면 작년에 1월-9월까지 조제분유 생산량이 11.7%가 증가했다. 국내소비가 감소한 반면 수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이란 등지에 kg당 3,500원씩 수출하였는데 일본 유업체들이 중국, 홍콩, 호주 등지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쌀원료로 현지생산하여 수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유리한 측면은 plant 수출이다. 우리나라의 시설, 수준, 기술이면 외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개방전략중 중요한 것은 종합상사개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신제품을 종합상사에서 전세계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여 수출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기업들이 종합상사를 잘 이용하여 전세계에 우리 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자체연구진을 활성화해야 한다.

외국에서 들어온 좋은 제품을 연구소에서 빨리 흡수하여 다시 한국적인 것으로 개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문지웅 소장 :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농가와 유가공업계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를 맞고 있다. 우리 서울우유에 있어서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이라기 보다는 평소 생각하여둔 연구개발 방향을 위주로 말씀드린다. 지난 연말 UR협상이 타결되어 3월15일이면 이행계획서 제출, 4월25이면 GATT에 승인되어 내년부터는 개방되는 여러가지 유제품을 보면 전지분유, 탈지분유, 버터, 연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일정율의 저관세를 내면 거의 다 들어온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품개발이나 연구개발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시기적으로 늦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개방의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2가지 대처방안으로는 단기적, 장기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UR협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을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부, 관련기관, 학회가 협력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서 2000년 이후 유제품이 완전개방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오히려 UR협상이 외국에 값싼 원료를 들여와서 역수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우유의 앞으로의 연구개발방향으로는 국제적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밀접한 기술정보교환 및 기술교류를 통해서 연구개발하고자 한다. 선진 낙농국의 High-Tech를 빨리 받아들여서 국제화에 대응하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산학연구를 그간 조금은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좀더 산학연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것은 기업적인 차원에서 응용연구부분에 치우쳐서 제품의 실용화를 전제로하는 연구를 많이하고 기초연구라든지 학술적인 연구는 학교나 전문연구기관에서 해 주리라고 생각되므로 그러한 부분을 피해서 실용화연구쪽에 커다란 비중을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제품개발면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외국의 값싼 제품과 물량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기능면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는 제품의 차별화를 가져야 한다. 다양화와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소비층별로 가격과 품질에 차등을 두어 소비성향을 우위의 값비싼 가격구조에 차등을 두는 제품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기호층별로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 한국적인 기호가 중요하고 외국사람이 좋아하는 제품개발도 검토하여 생산할 것이다. 아울러 제품의 기능면에서도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 제품의 기능성이라고 하면 연령, 체형, 신체조건에 따라서 영양요구조건 등이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식, 병원식, 치료식 등의 특수유제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제품의 고급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유의 질이 중요하다. 원료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유질개선과 검사, 집유방법, 품질관리방법을 확립할 것이다. 설비의 자동화와 위생적처리,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설비투자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포장의 고급화도 품질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포장의 고급화에도 신경을 쓰려고 한다

신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과 품질관리, 설비를 기준으로 원유관리, 검사방법개선, 살균방법개선, 환경위생, C.I.P방법개선, 폐수처리, 포장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

고 개발해야 한다. High-Tech를 이용한 제품개발은 유전공학, 효소공학을 이용, 신소재를 개발하여 특수제품, 고부가가치의 유제품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다.

다음에는 수입원료 방안이다. 이것은 서울우유 뿐만아니라 한국낙농의 생존이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값싼 외국수입원료에 모든것을 의존하여 유업체가 경영해 나가던가, 제품개발을 한다면 과연 우리 낙농은 어디로 갈것인가?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30년동안 낙농과 더불어 유가공업체는 발전해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낙농의 발전없이는 유가공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입원료를 어떻게 쓸것인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입원료를 정부의 관장하에 수급조절기구를 상설하던가 또는 유업체에서 좀더 새로운 각도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빨리 연구되었으면 한다.

우선 당장 1995년 부터 2001년까지 외국 유제품으로 인한 시장잠식액이 무려 1조5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우리 유제품의 매출액이 현재 연간 2조3천억에 이른다고 보았을때 거의 1년분에 가까운 금액이 6-7년 동안에 잠식된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값싼 수입원료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들여다가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좋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우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유만은 기본이므로 시유만은 공동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모든 낙농가, 유업체, 정부가 공동보조를 취해 자조금제도 등을 이용하여 공동홍보를 해야될 줄 안다. 또한 학교급식을

확대해야하며 시유를 만드는 원료유만은 1등급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원료유의 수급조절용으로 수입하는 전지분유, 탈지분유들을 정부기관, 유가공업체, 협회에서 이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많은 지혜를 모아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백 병 학 박사 : 저희 회사는 우유류, 발효유,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고 UR타겔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하는 치즈나 분유류는 생산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업체보다는 개방화에 대한 영향이 적다. 또한 집유량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는 있지만 연구개발전략으로서 소극적전략 보다는 세계의 원료를 적극적 전략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우유, 발효유 분야에 있어서는 수입개방화가 됨에 따라서 shelf-life가 짧은 분야에서는 타격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유의 질을 높이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소비자도 경제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강이나 자연, 천연지향적인 것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이용한 고급 기능성제품들을 개발 해야 한다.

아이스크림 분야에서는 국내 조달이 어려운 생크림 등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야하기 때문에 지방함량이 높은 제품들은 질 좋은 국산원유를 이용해서 만들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빙과류는 외국에서 생크림이나 크림대체품을 수입해서 값싸고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요즈음 身土不二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유제품에서도 우리나라 원유의 질을 높여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고급의 shelf-life가 짧은 제품, 수

입이 되기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원료를 사용해서 고급화, 고가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원료조달이 어려운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값싼 제품을 만들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품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외국의 제품들을 많이 수집하여 분석하므로서 서구화 되어가는 식생활에 대비하여 디저트류 등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 분야에서 우리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제품수출 및 plant수출을 하여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에 동참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안 종 건 교수: 앞에서 많은 좋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런것들이 실현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원유품질, 우리나라 고유품질의 유제품,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는 개발전략, 개발 및 제조과정에 이외의 가격을 절감하는 요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신선한 원유를 원료로 하는 유제품의 시장을 우선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원유의 품질이 좋지 않고서는 안된다. 특히 시유시장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국내 생산원유 품질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시유의 시장이 급속히 잠식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유의 위생등급은 시급히 경쟁대상국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원유의 품질이 선진낙농국과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김기성 박사께서 제시한 원유등급의 상향조정에도 동의한다.

체세포 숫자와 관련된 품질은 위생적 관리 외에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

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품질에 대한 장려금제도의 적절한 운용으로 전체 원유가를 유지시키면서 원유의 품질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품질의 유제품 측면에서는 기존하는 유제품의 생산은 서구에서 오랫동안 연구, 정착 되어온 품질기준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식생활 습관에 근거하는 고유한 품질의 유제품 개발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서구에서 소비되는 원료와 동일하지만 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식품이 매우 많다는 사실과 한국인의 변화하는 식품소비성향 및 건강관리 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가 국제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하는 유제품의 품질개선 및 확보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고유품질의 유제품개발은 국제화되는 상태에서 국내시장을 튼튼히 하는 측면에서 늦은감이 있지만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던 가공공정도 기존제품의 가격 및 품질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여창 교수께서 제시한 기존하는 가공공정의 원료, 인력관리, 환경과의 문제 등의 점검 필요성에 동의한다. 예를들어 동물성식품에 대한 국민의 개념도 변화하고 현대의 식품과 건강문제는 양의학에서 한의학, 체질의학이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제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술외적 요인의 점점 측면에서는 개발 및 제조과정 이외의 가격절감 문제인데 그동안 유통구조가 유가공연구회에서 수차례 제시되

고 대안이 발표되고 있으며 가정배달 문제가 그때마다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도 가정배달이 존속을 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다. 가정배달이 소비자의 요구 때문에 존속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유통의 구조적 불합리가 원인이라면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종류의 기술외의 불필요한 지출의 제거에 의한 소비자 가격의 절감요인은 유업체 자신만이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현실의 구조때문에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경비가 만일에 있다면 이를 피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결국 가격 및 품질의 경쟁력은 기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문제의 해결에 있다. 기술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유가공 기업의 방향은 기업이 가지는 특징적인 속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바탕하에 국내 낙농기반 유지에 각별히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 석 락 소장 : 1986년 우루과이 휴양지 펀다 델 에스테에서 시작된 GATT 8차 협상이 7년간이라는 긴 줄다리기를 끝내고 1993년 12월15일 비로소 타결되었다. 116개국이 그동안 자국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추구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였으나 결과는 미, 일, EU 등 선진 강대국 위주로한 힘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해온 각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으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불공정한 쌍무협정, 각종보복조치 등에 의해 도리어 더

큰 불이익을 당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UR협상 타결이 우리로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것이 더 많다는 분석이지만 농산물 분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개방과장이 가장 직접적으로 미칠 축산낙농업 분야에서 제일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GATT시대는 끝나고 95년부터 새로운 질서인 WTO(세계무역기구)가 발족되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기본방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므로 산업정책의 초점은 산업 경쟁력강화, 기업체질개선, 경영합리화에 맞추어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UR협상 타결이 유가공업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원유 소비는 시유용이 70% 이상으로 이들 품목은 신선도 유지면에서 수입이 어려운 만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시유는 현재도 이익율이 낮은 제품인데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유장분말 우유함유 조제품, 생크림 등이 비교적 낮은 관세로 수입자유화됨에 따라 각종 유제품 원료로서 그 이용성 개발이 보다 활발화 될 것이며 자연치즈와 조제분유 등의 수입으로 이에 소요되던 원유가 남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 군납 등의 확대로 소진 강구 할 수 있으나 수익성 저하)

셋째, 개방초기에는 저가 수입원료 사용으로 유가공업체에 이익을 줄 수 있으나 낙농기반 약화 분위기와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 및 대형유통 기업의 수입판매 확대와 PB상품 판매전략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다음에 낙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 (1998년까지 42조원 투

입)의 일환으로 낙농분야도 전업농가 육성, 젖소개량, 각종제도의 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이 강구될 것이지만 낙농업의 산업적 위치의 쇠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음에는 새로운 환경 변화속의 성장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원료수급면에서 원유는 UR타결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낙농진흥법(현재 국회계류중)의 신속처리가 예상되고 이에따른 낙농진흥회 설립 운영이 보다 빨라질 것이다. 따라서 집유는 축협(낙협)으로 일원화되고 유가공업체는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구입하는 새로운 질서속에 집유비용절감과 유질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원료 유제품은 거대 다국적 기업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기반 조성이나 해외생산 기지화 등 적극적인 대책강구도 필요하다.

둘째, 기술개발면에서는 새로운 국내외 환경변화속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외국기업과 싸우는 길 밖에 없다. 결국 생존을 위한 관건은 기술개발이다 최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또한 학계도 현실 참여속의 학문발전에 눈을 뜨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산학협동 연구가 필요하다. 음식료품의 R&D 투자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낮은 실정인데 유가공분야의 R&D 투자 비율은 이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과보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R&D투자와 함께 대학의 관련학과 입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향상을 위한 학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업체간 업무제휴가 있어야 한다.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시유 유통은 광역유통 체계에서 지역유통 체계로 전환되고 거래관

행도 가정배달에서 유통점으로 점차 바뀌질 것이다. 대형유통점에서는 수입식품 판매확대 및 자체상표로 저가화하여 제조업과 큰 마찰이 예상된다. 물류 경비는 수익의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되어 이의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업체간 업무 및 생산 기술제휴가 있어야 한다. 유통구조 변화와 거대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업체간 업무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다. OEM방식 생산에 의한 축협(낙협) 및 지방 유가공 업체와 대메이커의 업무제휴 및 2-3개 회사가 합작으로 공장 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과다경쟁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네째, 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일본 주요 식품기업 18개회사의 과거 10년간 성장을 비교한 결과 3대 유업회사의 성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맥주, 식육업, 제빵업에 비교하여 1/3, 가공식품업에 비교하여 1/2 수준이며 제과업보다도 낮은 성장율을 나타내었다. 일본 3대 유업회사 저성장 원인은 일반 식품에 비해 수익이 낮은 유제품의 비율이 80%가 넘고 있으며 정부의 낙농제품 보호정책으로 기업체질이 보수화되어 새로운 환경에 대응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업종 참여에 앞서 경쟁전략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구태의연한 전략으로 일관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 탄생되기까지는 연구개발을 포함하여 사내 거의 모든 부서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착상, 제안에서부터 조사, 정보수집, 연구개발, 시험생산, 시장조사, 설비시설투자, 원부자재조달, 품질설계, 표준화, 생산 및 광고선전, 시장조사, 품질평가 및 재설계 등등 이러한 과정에는 연구, 기획, 기술, 제조, 구매, 영업유통, 광고

선전, 법규 등이 참여하는 전사적 노력과 유기적이고 신속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하나하나의 제품에는 그회사 경영자의 경영방침과 철학이 배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으므로 유제품 개발의 일반적 방향만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 요구성 변화 부응

(1) 가치성 변화

- ① 1세대 식품 - 영양성
- ② 2세대 식품 - 기호성
- ③ 3세대 식품 - 생리 기능성

(2) 요구 및 수효 변화

- ① 세대 요구성(노년층, 신세대층)
- ② 건강 지향성
- ③ 자연 지향성
- ④ 안전성
- ⑤ 편리, 간편성
- ⑥ 구루메 지향성
- ⑦ 환경 요구성 (저공해 포장)

2) 주요 유제품 개발 방향

(1) 시유, 가공유

- ① 유질개선, 고품질화
- ② 광역 유통에서 지역유통화에 따른 정책
- ③ OEM 생산
- ④ 저가 수입 원료 이용 개발

(2) 요구르트

- ① 자체사용 종균 개발
- ② 고품질 플레인 요구르트
- ③ 생리기능성 (3세대 식품)

(3) 치즈

- ① 치즈이용 디저트 제품
(치즈케익, 치즈요구르트)

- ② 외식 산업용 다양화

(4) 유지제품 (버터, 생크림)

- ① 용도 다양화
- ② 마아가린 시장 잠식
- ③ 수입원료 이용성
- (5) 아이스크림
 - ① 수입 아이스크림 대응 제품
 - ② 수입 유지방 이용성
- (6) 유아 식품
 - ① 고품질화
 - ② 수출지향
 - ③ 특수영양 식품 분야로 점목
 - ④ 기초연구 활성화 및 소재 개발
- (7) 기타 (유업체 강점이용)
 - ① 외식 산업용 제품
 - ② chilled 유통 제품

질의 및 응답

문: (이흥구전무) 유통문제에서 광역에서 지역 유통체계로 나가는 방향으로 제시하신 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것으로 알고 있다. OEM방식으로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지방의 생산자 조직을 활용해서 유통비용을 경감하는 것은 불만이다. 그러나 지방에 신규공장을 지어서 광역화를 지역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전석락 소장) 시유제품을 예를들면 집유가 혼선에 의한 중복된 판매구조가 분명히 있다. 이런것을 축협, 낙협의 단위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생산하여 부산까지 보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OEM방식이라던지 업무제휴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지역판매망

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한 것이다. 일본의 예를들면 모리나가 유업의 이름을 붙인 제품이 전국을 커버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을 만드는 공장은 지역의 자회사 이거나 OEM방식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다.

문: (김영주 교수) 유가공연구회가 창립되어 여기까지 오기에는 엄청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상호정보교환, 산학협조과정에서 이어왔다. 앞으로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더욱 더 협력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유업체 자신만의 인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기술투자와 산학협동이 필요하다.

문: (허청재) 농가입장에서 당장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외국기업의 몰락공세, 기술열세에 의한 종속화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치즈분야에서 외국의 브랜드를 업고 오는것이 아닌가, 이런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가?

답: (김정희 소장) 산학협동은 연구소장 권한 밖이다. 기업가의 손에 달려있다. 학계에서 기업가에게 먼저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학계에서 하는 연구는 기업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는 기업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간 것도 많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한다. 단계적인 산학협동이 필요하다. 농가의 입장을 기업가는 고려치 않는다. 그러나 농가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제품개발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되는 원자재를 스스로 개발하여 고급화, 차별화하여야 한다.

문 : (강국희 교수) 낙농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공통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농수산부에서도 우유의 등급문제를 하기 전에 년도별, 지역별 원유의 세균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이정도의 유가공업의 수준이 되면 전국적인 자료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업체간의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학계와 업체가 협력하여 한국유가공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